

주요국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FTA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김종권*

목 차

- I. 서론
- II. 주요국의 통상정책과 FTA추이
- III.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 IV.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I. 서론

자유무역협정(FTA)이란 GATT 제24조 B항 (b)에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체결국 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동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는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가 있으며, 투자의 자유화로 인한 직접투자 증대 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역외국에 부과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는 무역전환효과에 따라 역외국 비교우위 상품의 역내 수입을 막아 역내국 국민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일부 상쇄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생기게 된다.

한국은 지난 1980년대 말 북미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FTA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FTA를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추구,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및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소비자 후생 증대,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정치적 동반자 관계 형성 등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3년 2월에 칠레와 한국 최초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일본과도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싱가포르와도 2004년 내 FTA 협정 타결과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통상정책과 FTA추이를 살펴보고,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통하여 한국의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산업부문의 대응책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신홍대학 경상정보계열 전임강사,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1동 117
(전화번호 : 031-870-3463),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중계라이프아파트 110동 602호
(전화번호 : 02-3391-1360, 핸드폰 : 019-273-7711)
E-mail : jkk1112002@hanmail.net

II. 주요국의 통상정책과 FTA추이

1. 주요국의 통상정책

(1) 한국의 통상정책

한국이 FTA정책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외환위기(currency crisis) 이었으며,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개혁과 아울러 개방정책의 하나인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를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하였으며, 2003년 2월 칠레와 한국 간에 한국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표 1. 참조>

표 1. 주요 FTA의 항목 비교

구 분	미국- 이스라엘	NAFTA	미국- 요르단	FTAA	캐나다- 칠레	멕시코- 칠레	EU-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한국- 칠레
관세철폐	0	0	0	0	0	0	0	0	0
수량제한		0		0	0	0	0	0	0
세이프가드	0	0	0		0	0	0	0	0
ADD	0	0		0	0		0	0	0
원산지규정	0	0	0	0	0	0	0	0	0
관세평가/ 통관수속		0	0	0	0	0	0	0	0
투자		0		0	0	0	0	0	0
서비스	0	0	0	0	0	0	0	0	0
기준/인증		0		0		0	0	0	0
위생식품검역	0	0		0	0	0	0	0	0
정부조달	0	0	0	0		0	0	0	0
지적재산권	0	0	0	0		0	0	0	0
경쟁		0		0	0	0	0	0	0
분쟁해결	0	0	0	0	0	0	0		0
국제수지조항	0		0				0		
일반예외	0	0	0		0	0	0	0	0
경제기술협력			0				0		
합동위원회	0	0	0		0		0		
전자상거래			0						
인력이동		0	0		0	0			

자료 : 1)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백서, 2002, 2003

2) 외교통상부,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2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한·일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합의하였고, 싱가포르와도 2005년 시한을 목표로 2004년 7월21일부터 23일간 한·싱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표 2. 참조> 이와 같이 정부가 기존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FTA추진을 정책의 일환으로 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유지,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해외직접투자의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 확보 등이다.¹⁾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01

표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구 분	대상국가 (지역)	추진 현황	비 고
기체결	칠레	공식서명(2003.2)	- 국회비준(2004.2), 발효(2004.4)
정부 간 논의단계	일본		- 정부간 협상개시(2003.12) - 일본과 2005년말 까지 FTA 협정타결 목표
	싱가포르		- 정부간 협상개시(2004.1월말) - 한·싱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협 상 개최(2004.7) - 한국은 2004년 내 FTA 협정 타결 및 발효 목 표 - 상품분야 시장개방 이행계획에 대한 의견 접근 (2004.9.710)
공동연구 검토단계	멕시코	국내검토완료	- 멕시코 정부의 향후 FTA협상중단 발표로 협 상 불가능해짐(즉, 2003년 9월 멕시코 정부 FTA 체결 제의 거절)
	ASEAN	- 제1차공동연구발표 (2004.3.89) - 2004년 상반기 산· 관· 학 연구 개시	- 아세안, 2005년부터 FTA 공식 협상을 시작 해 2년 내 협상을 완료할 것을 제안 - 아세안, 2009년말 까지 상호 충격이 작은 품목 부터 관세 철폐 제안(2004.9.4)
	EAFTA	국내검토완료	- ASEAN+3 정상회의에서 EAFTA 논의 및 중 장기적 검토 합의
	EFTA	국내검토완료	- EFTA 요청 - 한국과 EFTA 간 FTA 체결 검토를 위한 제1 차 공동연구(2004.8)
향후 추진대상	미국		- 미국,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제 의 를 한국 측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 (2004.9.9)
	중국		- 한·중 경제통상 공동연구팀 발족 검토 (한·중 경제통상연구회의시 논의가능)
기타	태국	2001년 공동연구 종료 후 진전 없음	- 태국은 태·한 FTA 논의 재개 요청 중
	한·중·일	국책연구기관을 중심 으로 공동연구	- 중국 제안(2002.11) - 공동연구기관 : KIEP, NIRA, DRC

주 : EAFTA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 포함)이며, EFTA는 유럽자유무역 지대(유럽자유무역연합이며,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됨)를 의미함

- 자료 : 1) 정인교, “우리나라 FTA 추진대상국 선정 및 추진전략”, FTA정책 종합토론회 발표자료, 2003
 2) 아세안사무국, ASEAN 對外 FTA 추진동향, 2004
 3) 외교통상부, 한국의 FTA 추진현황, 2004.2
 4) 외교통상부, 한·칠레 FTA에 따르는 주요시장 개방 일정, 2004.3
 5) 이원근, “한·칠레 FTA 비준 통과와 영향과 대책”, 현대경제연구원, 2004.3
 6) 외교통상부, “한국과 EFTA 간 FTA 체결 검토를 위한 제1차 공동연구”, 2004.8

(2) 미국의 통상정책

1990년 6월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미주를 위한 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EAI)을 처음 제안함에 따라 미국의 FTA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4년 12월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제1차 미주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에 의하여 FTAA의 추진원칙에 합의하였으며, 1998년부터 무역협상위원회(TNC)와 9개 협상그룹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브라질 등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국가들이 관세율차이 등에 따른 부담으로 협상에 소극적이어서 진전은 다소 부진한 실정이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미주자유무역지대는 미국의 최우선정책 과제 중에 하나로 지속될 전망이다. 2004년 미대선 이후 미국정부의 농산물 협상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향후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향후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은 MERCOSUR-EU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 및 미국의 대선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²⁾ 2004년 10월 MERCOSUR와 EU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경우 미국으로 하여금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상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미대선 이후 미 행정부의 농산물협상 양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4년 말에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싱가포르,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모로코, 호주, 태국과도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³⁾ 이러한 쌍무협정은 FTAA로 대변되는 지역 간 협정, WTO의 다자간 협정과 함께 3대 통상정책 중 하나이다. 현재 쌍무협정에서 주로 논의되는 이슈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노동,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투자, 환경 등 포괄적이다.

(3) 일본의 통상정책

일본은 무역구조상 동아시아 지역과의 FTA 추진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ASEAN 및 한국이 전략적 FTA 추진대상국으로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국가 및 지역과 FTA 체결을 위한 교섭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표 3. 참조>

일본과 멕시코와의 FTA체결이 2005년 1월 들어 발효되는데, 이를 통하여 멕시코에 진출한 일본의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들은 FTA 체결로 유리한 관세혜택과 안정적인 부품공급이 가능해져 멕시코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잇단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멕시코에 진출한 HONDA와 NISSAN은 각각 1억 4천만 달러와 6억 달러 규모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티후아나에 소재한 일본 전자제품 생산업체들도 최근 일반TV 생산설비를 플라스

2) MERCOSUR는 2004년 7월에 멕시코와도 자유무역협정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3) 미국·호주간 FTA가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 의회의 비준을 통과하여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4년 7월 8일 미국 연방하원의 Ways and Means Committee는 호주·미국간 FTA를 승인하였다. 한편, 미국과 태국간의 FTA 협상도 2004년 7월 이후 실시되고 있다.

마, PDP TV 생산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멕시코가 작년부턴 플랜트건설 등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FTA체결국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본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어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 일본의 FTA 추진 현황

대상국가	추진 현황	주요 이슈
싱가포르	- EPA 서명(2002년 1월), 발효(2002년 11월)	- 농산물은 제외
멕시코	- 2002년 10월 정상회담시 정부간 교섭합의 - 체결(2004년), 발효(2005년 4월)	- 일본 : 농산물예외 주장 - 멕시코 : 모든 농산물 포함
ASEAN	- 일본과 ASEAN이 FTA 체결을 위한 교섭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2004.9.4) - 2005년 4월부터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제한을 없애는 FTA 교섭에 들어가 2년 안에 타결짓는다는 원칙에 합의	- ASEAN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한 대응
태국	- 2002년 4월 정상회담시 FTA 논의 합의 - 2003년 중 W/G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 농산물분야와 관련, 일본 국내합의가 미비
필리핀	- 2002년 5월 정상회담시 제외 - 2002년 10월 제1차 W/G회의 개최	- 농업분야 개방문제
호주	- 2002년 2월 고위경제회의시 제외	- 농업분야 개방문제
칠레	- 2000년 5월 2001년 4월 JETRO·칠레외무성 공동연구	- 농업분야 개방문제
말레이시아	- 2003년 2월 W/G 설치합의	- 농업분야 개방문제
한·중·일	- 1999년 11월 ASEAN+3 계기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간 공동연구 합의 - 2003년 10월 정상회의에서 공동연구 지속 합의	- 한국과 일본은 한일 FTA 추진 중 - ASEAN과의 FTA 추진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 간의 경쟁 상황

자료 : 주일한국대사관 정책참고자료 2003, 2004

2. 아시아지역에서 FT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⁴⁾에 따르면, 예상되는 모든 지역무역협정이 실현될 경우 세계 무역에서 특혜지역무역협정(Preferential Regional Trade Agreement)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43%에서 55%로 증가할 전망이다. 과거 특혜협정을 기피하였던 아시아 국가들이 지역무

4) OECD,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rade Directorate Trade Committee, 2002, p.12

역협정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 사실로 추론할 수 있다. 더욱이 WTO체제 출범 이후 도하개발 아젠다(DDA)의 진척상황이 WTO 회원국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많은 회원국들이 지역주의 이니셔티브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3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점검하고, 소위 싱가포르 이슈 등에 대한 협상개시여부를 논하였으나, 회원국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으며 끝내 결렬되었다. 이 결과로써 개방과 자유화를 추진하는 국가들 간의 지역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⁵⁾

더욱이 과거 FTA의 공백지대라고 불리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역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변화들은 세계 각국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FTA의 급증과 더불어 아시아 경제위기, 중국의 대두 등 동아시아 지역내외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

이러한 상황에 따라 한국도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과 세계적인 통상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FTA를 통하여 통상외교의 폭을 확대시키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더욱이 중국의 부상 에 따라 한국경제의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시키고 이를 한국의 성장기회로 삼기 위해 FTA를 통한 국내산업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한편, 비교우위산업을 통한 국가간 산업의 분업구조 토대를 굳건히 하여야 한다.

표 4. 아시아지역 각국의 FTA 추진동향

대 상 국	진 행 결 과
중 국	- 2010년 완전 자유화를 목표로 현재 ASEAN과의 FTA 협상 진행 중
인 도	- 2011년부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현재 ASEAN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 - 인도와 태국 간의 FTA 추진현황 ○ 관세인하 시기: ·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는 관세의 50% 면제 ·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는 관세의 75% 면제 · 2006년 9월부터는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 방글라데시와 FTA 적극 추진 중
일 본	- 2012년까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2005년부터 ASEAN 과의 FTA교섭을 개시기로 합의(2003.10.8) - 우선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개별협상을 진행 중
호주·뉴질랜드(CER)	- ASEAN과 지역간 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을 규정 한 각료선언 채택 (2002.9.14) ○ 호주 : 싱가포르 및 태국과 FTA 체결(태국과는 2005년 7월 1일 발효), 말레이시아와의 FTA 관심 표명 ○ 뉴질랜드 : 2004년 11월말까지 태국과 FTA 체결 예상

5) 박변순,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6) 木村福成・鈴木厚, 「加速する東アジアFTA」, ジェトロ, 2003

주 : CER은 소지역관계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Closer Economic Relations(CER) Agreement를 의미함
 자료 : 1) 아세안사무국, 2004.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도-태국 FTA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04.2.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뉴질랜드, 태국과 FTA 11월 이전 타결키로", 2004.7.

4) 빈준화, "말레이시아, 호주와 FTA 협상 개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7.

5) 빈준화, "말레이시아, 오만 FTA 체결 검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7.

4. 아시아지역에서 각국의 FTA 정책 방향

(1)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1990년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을 처음으로 밝힌 국가로서 동아시아 협력을 논의하는 장에 역외국이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지만, 2004년 7월부터 호주와 FTA 협상을 위한 사전회담을 시작하였다.⁷⁾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오만과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진흥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2004년 5월에 미국과 FTA 체결 전초로서 무역 투자 프레임워크 협정을 체결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특별히 ASEAN+3을 통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2) 인도

중전의 고립주의에서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중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장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남아시아국(7개국, SAPTA협정), 아프가니스탄과 특별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면제나 관세인하를 실시 중에 있다.

인도는 스리랑카와 FTA를 1998년 12월에 최초로 체결하였으며, 이후 ASEAN,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MERCOSUR와 협상중이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3) 인도네시아

CEPT 합의는 가공농산물, 농산물, 자본재의 정의 이외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포함하여 모든 제조업품목에 적용시켰다. 이 때에 농산물은 CEPT 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CEPT 계획은 두 가지 트랙의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첫째, 정상적인 트랙 하에서 기존의 20%이상 되는 관세율을 2008년까지 5% 수준으로 감축시키기로 합의를 보았다. 둘째, 15개 제품그룹들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세율을 2003년까지 5%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관세인하를 CEPT 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일반제외품목과 임시배제품목이 승인됐으며 CEPT 계획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포함시켰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04년 7월 21일부터 중국산 농산물 57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573개 품목 중 46개 품목은 인도네시아-중국 양자간 협정, 나머지 527개 품목은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된 ASEAN-중국 간 FTA 협정의 조기실행계획(Early Harvest Package)에 의한 것인데, 관세가 인화된 품목은 HS 번호 1에서 8까지의 산동물, 육류, 생선, 낙농제품, 기타 동물성 제품, 산 나무, 채소, 과일 및 견과류 등이다. FTA 조기실행계획은 오는 2010년 완전히 발효될 ASEAN-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첫 번째 단계로, ASEAN 선진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과 중국은

7) 일본은 ASEAN+3 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을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04년 중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10% 이하로 낮추고 2006년에는 완전 폐지기로 결정한 바 있다.⁸⁾

(4) 일본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경제적 유대 관계가 강한 일본과 ASEAN 간의 협력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시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Asian Community)로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ASEAN 간의 포괄적 경제파트너쉽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 이는 양지역간 FTA 추진을 제외한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였으며 일본이 1992년 이후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 하에서 동아시아에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위상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 말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일본이 위기의식을 갖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ASEAN과 FTA를 제안하였다. 일본은 ASEAN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가능성 측면과 정치, 외교적 기준에 의하여 우선적인 교섭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한국, 멕시코, 태국, 필리핀 등과 협정 체결을 위한 연구 또는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산물 관세 철폐에 대한 국내 문제가 FTA 체결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다.

(5) 중국

중국은 2020년까지 중국이 취하여야 할 FTA 전략의 단계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ASEAN FTA 및 대 홍콩 CEPA의 조속한 발효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ASEAN 주요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둘째, 한·중·일 FTA⁹⁾ 또는 중·일이나 중·한 양자간 FTA 공식 협상을 조속히 추진한다. 셋째, 기타지역과의 양자간 FTA 및 ASEAN+3 FTA를 추진한다.¹⁰⁾ 넷째, 광범위한 범위의 FTA를 추진 한다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으로 중국 정부는 동북아 FTA보다는 ASEAN과의 FTA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다자간 FTA보다는 양자간의 FTA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태국

태국은 1992년에 ASEAN의 기본방향을 전환하였는데, 1992년 1월 들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Singapore Summit Declaration of 1992" 및 "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CEPT) Scheme for AFTA", "framework Agreement on Enhancing ASEAN Economic Cooperation"을 결정하였다. ASEAN 각국의 지도자들은 1993년 1월 1일 실효관세율을 0%에서 5%까지로 하는 AFTA 계획을 실행하는 합의를 보았다.

이에 따라, 태국은 ASEAN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FTA체결에 적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태국은 특별히 일본 및 중국과의 협상 추진에 적극적이며, 호주와의 FTA협상이 순조롭게

8) ASEAN -중국 간 FTA에 의하면 오는 2010년까지 자동차, 전자제품 등 5%의 민감 품목을 제외한 95%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토록 되어있다.

9) 유관영(2004)에 따르면 3국간 FTA체결로 인한 경제적 후생효과는 한국이 178억 달러로 일본의 616억 달러, 중국의 473억 달러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호주는 중국의 첫 번째 FTA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이는 양국 경제가 상호보완적이며, 호주가 중국의 FTA 실험대상국으로 적정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상황이다. 2005년 7월 1일에 태국·호주 간 FTA가 발효될 경우, 현행 48%에 달하는 관세는 향후 5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양국간 교역확대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태국은 중동지역 진출에 발판마련을 위해 바레인과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 한국

한국과 ASEAN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관세철폐 및 국내 보조 제약 등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이 ASEAN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때 예상되는 한국산업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1차산업, 기계류, 의류, 전기전자는 생산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며, 자동차 부품, 철강, 화공 등의 생산 규모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ASEAN과의 FTA가 동아시아 FTA를 고려한 장기적인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대 ASEAN FTA 추진에 따른 피해 방지 차원에서 ASEAN과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은 최소한 중국과 일본이 ASEAN과의 FTA를 추진하려는 속도에 발맞추어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Ⅲ.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1. 한·칠레 FTA

한국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 4월 FTA가 발효된 지 2달 후 양국간 교역량(미 \$1,056백만)은 전년동기대비 6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간의 품목별 수출입동향을 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핸드폰, 가전제품 등 공산품이 주된 수출품목이며 산업용 원자재 및 광산물, 농수산물 등을 수입함으로써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무역거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한·칠레 수출입 총괄

(단위 : 미\$백만)

구분	2002	2003		FTA발효 후		
		금액	증가율	2003(1-5)	2004(1-5)	증가율
수출	454	517	13.9%	216	245	13.3%
수입	754	1,058	40.3%	416	812	95.2%
무역수지	-300	-541	241	-200	-567	-180%

자료 : 한국 관세청, 통계자료, 2004.6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먼저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경우, 전년 동기대비 기준으로 15월에 51.6%증가한 데 이어서 6월까지 미\$98,393천으로 37.5% 증가하였다. 그리고 4월 FTA 발효 이후 수출증가세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9> 참조)

표 8. 대 칠레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현황

품목명 (MTI)	2003		FTA발효 후		
	금액	증가율	2003(1-5)	2004(1-5)	증가율
총계	517,187	13.9	216,116	244,876	13.3
자동차(741)	162,362	28.6	55,926	84,803	51.6
합성수지(2140)	50,312	41.1	24,229	22,732	-6.2
경유(1332)	81,624	82.6	48,385	20,274	-58.1
무선전화기(8121)	23,140	-25.4	9,412	16,991	80.6
자동차부품(7420)	21,106	465	8,261	9,010	9.1
직물(43)	23,718	-21.0	9,789	8,622	-11.9
세탁기(8241)	14,219	-24.3	8,985	9,612	7.0
타이어(3203)	10,391	13.2	3,994	5,655	41.6
비디오카메라(8214)	3,646	45.8	1,465	3,700	152.5
철강제품(61)	27,661	1.8	8,326	7,466	-10.3
냉장고(823)	5,129	-30.6	1,471	3,198	117.5
컴퓨터(813)	3,019	-3.6	755	3,551	370.7
건설중장비(7251)	8,447	19.7	2,345	3,221	37.3
축전지(8352)	4,802	-4.3	2,982	2,536	-15.0
칼라TV(8211)	7,249	-48.6	2,159	3,105	43.8
VCR(8213)	4,903	32.1	1,176	1,338	13.8
전자레인지(8254)	2,081	-43.3	991	1,387	40.0
엘리베이터(7451)	908	-42.1	160	512	220.9
모니터(8134)	569	15.7	38	1,165	2958.1
진공청소기(8245)	1,896	26.8	952	1,033	8.5
에어컨(8242)	731	-1.0	208	1,335	540.8
섬유기계(7211)	1,276	-16.9	876	786	-10.3

(단위 : 미\$천)

자료 : 1) 한국 관세청, 통계자료, 2004.6

2) 한국 무역협회, 통계자료, 2004.8

표 9. 주요국별 자동차 판매 추이

국명	2003년		2004(1-5월)	
	판매대수	점유율	판매대수	점유율
일본	28,109	23.5	11,898	26.1
한국	22,510	18.8	9,342	20.5
브라질	22,258	18.6	8,148	17.8
알제틴	18,535	13.5	6,182	13.5
계	119,501	100.0	45,675	100.0

자료 : 칠레 자동차협회(ANAC), 통계자료, 2004.6

한편, 한 때 FTA 비준 지연 등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에 있었던 휴대폰 경우 금년도 1-5월까지의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80.6% 증가한 미\$16,991천을 기록하였다.¹¹⁾ 그리고, 자동차부품

의 경우에는 FTA발효 후 5년간 균등 관세인하 품목으로 1-5월 중 전년 동기대비 9.1%의 수출증가를 보이며, 전체 미\$9,010천을 기록하였다. 한편, 중장비 건설장비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즉시관세철폐 또는 5년간 관세인하 품목으로 1-5월 중 전년 동기대비 37.3% 수출이 증가하였다. 5월 한 달 동안의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미\$916천으로 작년 동월 대비 94.4%가 증가하였으며, 칠레 건설경기 회복으로 2004년 하반기 들어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즉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에는 FTA 발효와 무관하게, 전년 동기대비 22.5%증가한 미\$12,810천 수출을 보이고 있으며, 즉시 관세철폐대상인 비디오카메라, 컴퓨터 및 칼라TV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52.5%, 370.7%, 43.8% 증가를 보이고 있다.(전체 118% 증가) 특히 칼라 TV 경우 FTA발효 이전까지만 해도 칠레 TV수출이 물량기준 월1,500-2,000대 이던 것이 FTA 정식발효이후 4월부터 약 5,000대로 급신장하고 있으며, 금년도 TV수출은 작년 대비 약 40%이상 신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 10. 대 칠레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미\$천)

품목명	2003		FTA발효 후		
	금액	증가율	2003(1-5)	2004(1-5)	증가율
총계	1,057,723	40.3	415,799	811,565	95.2
동피(622120)	510,516	19.7	200,457	419,510	109.3
동광(113000)	219,113	81.7	101,826	193,596	90.1
동스크랩(622130)	2,586	-7.5	1,399	1,661	18.7
메탄올(H290511)	82,877	64,622.0	13,292	47,391	265.5
펄프(251100)	82,348	17.7	31,663	39,589	25.0
돼지고기(022120)	30,237	374.0	9,650	19,394	101.0
원목(031100)	490	-95.1	-	7,688	-
제재목(031200)	8,800	19.1	3,377	5,926	75.5
포도(011621)	13,656	57.5	12,678	12,756	0.6
홍어(H0303799093)	9,962	75.3	4,294	4,680	9.0
포도주(015740)	2,990	148.2	1,053	2,528	140.2
파티클보드(031600)	5,327	2.5	2,085	2,199	5.5
키위(011611)	1,758	29.2	619	1,014	64.0
신문용지(252100)	1,014	-	258	306	18.5

주 : 동광의 경우 16월까지 미\$49,041를 기록하여 27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1) 한국 관세청, 통계자료, 2004.6

2) 한국 무역협회, 통계자료, 2004.8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구리의 경우 금년 중 1-5월까지의 대 칠레 구리 수입은 지속적인 구리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상승에 기인하여 수입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포도의 경우에도 칠레와 한국의 계절적인 영향에 따라(동절기) 금년도 1-5월간 수

11)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6월 들어 미\$8,513천을 나타내며 전월대비 666%라는 엄청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입은 미\$12,756으로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를 보였다. 한편, 돼지고기 수입은 광우병,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늘면서 금년 1-5월까지의 수입은 전년대비 101% 증가한 미\$19,394천이었으며, 16월까지의 수입은 전년대비 91.3%가 늘어나 미\$24,321천을 기록하였다. 한편, 홍어의 경우에는 한국이 칠레산 홍어의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금년도 1-5월 수입량은 미\$4,680천불로 작년 동기대비 9% 증가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포도주의 경우에는 국내의 포도주 소비 대중화와 웰빙 현상에 따라 대 칠레 포도주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도(1-5월)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40.2%가 증가한 미\$2,528천에 달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한국의 국별 포도주 수입현황

(단위 : 미\$천)

순위	국가명	2003		2004(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5,783	55.6	22,776	46.5
1	프랑스	22,684	38.9	10,238	33.7
2	미국	7,192	64.6	3,505	48.7
3	칠레	2,990	148.2	2,528	140.2

자료 : 한국 관세청, 통계자료, 2004.6

지난 4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과 칠레간 교역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구리 수입 급증에 따FMS 증가폭이 대부분이라 FTA에 따른 무역전환 등의 효과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2004)에 따르면 4월부터 8월까지 한-칠레간 교역액은 수출은 8월말까지 5개월간 대 칠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5% 증가한 2억5천4백만 달러, 수입은 85.8% 늘어난 7억8200만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5억2천8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對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은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동광의 국제가격 상승 및 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7월까지 對 칠레 수입액 11억3300만 달러 중 구리 제품(동광, 동광)의 수입액은 8억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 주력상품인 자동차, 휴대폰, 컬러 TV 등의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한-칠레 FTA 발효 지연으로 떨어졌던 우리 상품의 對 칠레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12%에서 올 1/4분기 2.61%로 내려갔다가 FTA 발효 이후에는 3.40%로 상승하였다.¹²⁾ 같은 기간 중국의 對 칠레 시장 점유율은 7.44% → 7.71% → 6.80%로, 일본은 3.66% → 3.71% → 3.64%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것이다.

이와 함께 FTA에 따라 국내산업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었던 농산물의 경우 아직까지 수입 급증이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우리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칠레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외교통상부(2004)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47월까지 자동차 41%, 휴대폰 231%, 칼라TV 79% 등의 수출이 급증하였다.

1.2%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최대수입품인 포도의 경우, FTA 발효 후 수입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하였으며, 수입이 급증한 돼지고기는 광우병 파동 이후 한국 전체 돼지고기 소비 자체가 늘어나 수입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증가율은 57%에 달하여 우리나라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율 75%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칠레 포도주(5년 관세철폐 품목)는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포도주 소비증가 및 값싸고 질 좋은 칠레 포도주에 대한 인식 제고가 증가의 원인으로 풀이되고 아직은 관세 철폐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칠레 FTA에 따르는 주요시장 개방 일정은 다음 <표 12>와 같다. 한·칠레 간의 FTA가 2004년 4월 공식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 휴대폰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2,450개 제품에 붙는 관세가 즉각적으로 철폐되었다. 칠레는 한국의 전체 수출품목 5,854개 중 2,450개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5년, 7년, 10년 이내 등 단계별로 수출 품목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져 발효 후 10년이 지나면 對 칠레 수출품목의 96.5%가 관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한편, 한국은 국내로 수입되는 칠레산 원자재와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점차적으로 낮춰 10년 후에는 96.2%의 對 칠레 수입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표 12. 한·칠레 FTA에 따르는 주요시장 개방 일정

관세철폐 기한	한 국	칠 레
즉 시	커피·배합사료·종우·종돈·사탕수수·사료첨가제·양털	TV·자동차·컴퓨터·핸드폰·기계류·경유·PVC·필름
5년 내	포도주·장미·두부·고사리·당류·초콜렛·면류	폴리에틸렌·수송차량·전기전자·자동차부품
7년 내	복숭아 통조림·종자용 옥수수·과실 조제품·칠면조 고기·감자	유류여과기·원심분리기·전기케이블·뉴시대
9년 내	기타 과일주스	
10년 내	토마토·돼지고기·오이·키위·복숭아·단감	진공청소기·축전지·자동차배터리·타이어(산업용)·의류·섬유·신발류·철강제품·운반기계류 부품
13년 내		섬유·의류·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
16년 내 ¹⁾	조제분유·배 가공품 등	
예외 품목	사과·배·쌀	세탁기·냉장고
TRQ+DDA ²⁾	쇠고기·닭고기·유장·자두·감귤 등	
DDA 이후 논의 ³⁾	마늘·양파·고추·낙농제품	금융서비스
계절 관세 ⁴⁾	포도	

- 주 : 1) 5년 후 협상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철폐
 2) 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DDA 타결 후 논의
 3) DDA 타결 후 논의
 4)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10년 균등)

자료 : 1) 외교통상부, 2004.3

2) 이원근, “한-칠레 FTA 비준 통과와 영향과 대책”, 현대경제연구원, 2004.3

3) 정인교, “한-칠레 FTA 이후 FTA 추진 방향과 정책시사점”, 응용경제 제5권 제2호(특별호), 응용경제학회, 2003.9

2. 한·일 FTA

한·일 간의 FTA협정이 체결되면, 우선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현재 일본은 거의 무관세로 0.8%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8% 정도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TA협정으로 인해 자유무역이 실현된다면 이러한 관세장벽이 우선 철폐되므로 수입되는 일본 제품의 품목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적인 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산업부분별로 살펴보면, 농업업 분야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수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산업원자재 등을 공동 구매하게 될 경우 비용절감도 이익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전체로 볼 때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많으므로 최근 한·일 FTA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증대되고 있다. 관세율 측면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시장에 대하여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기술협력 등 확실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협상체제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200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일FTA(Free Trade Agreement)에 대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4년 7월 들어 한·일 FTA 추진 속도 조절을 요구하였다. 철강,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전자 등의 각 업체단체 대표들은 한·일 FTA로 일본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관세 인하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한·일 FTA로 양국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수입이 대일수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대일의존도가 심한 부품 분야에 대한 대일 수입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욱이 일본시장은 계열거래 관행이나 행정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이 높기 때문에 관세율이 인하되어도 우리 수출이 늘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산업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사실, 철강이나 화학 등 소재산업의 경우 일본기업들이 장기적 거래관계를 중시하면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기전자나 자동차의 경우 일본 제품의 브랜드 파워가 강해 한국제품이 일본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가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시작한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다. 디지털가전이나 차세대 연료 자동차 등 신제품의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품 및 소재 부문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본기업과의 경쟁격화는 우리 기업으로서 부담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일FTA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무역 역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한일 공동연구 결과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오히려 개선되고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연구결과는 한·일 FTA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어 경제성장을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는 경쟁격화에 따른 한국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기적·동태적인 효과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효과에 비해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일FTA의 결과 대일수출 여건이 다소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측면에서는 중국의 경쟁력 향상이나 국제적인 환율 여건 등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기적인 대일적자 확대 효과가 한일무역 구조에 영향을 주면서 한국의 저부가가치 부문 특화 확대와 일본의 고부가가치 부문 특화 확대라는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고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도 한·일FTA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생산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비교우위 제품 비율이 15.0%에 불과하며, 일본의 56.7%에 크게 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도 관세율이 훨씬 낮은 홍콩의 23.3%, 싱가포르의 20.0%, 대만의 28.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일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품산업 강화를 정책 목표로 삼은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그동안의 폐쇄적인 보호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품산업은 아직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더욱이 동아시아에서는 역내분업이 활발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권을 창설하겠다는 각국 정부의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일과 동남아를 합한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보완계수는 2002년 기준으로 68.0%에 달해 EU(전신인 EEC) 창설기의 53.4%, NAFTA 창설기의 56.3%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높은 무역보완계수는 동아시아 역내경제권의 창설 여건이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ASEAN FTA, 중·ASEAN FTA, 동아시아 FTA 창설을 위한 역내 각국 정부간 협상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경제 입장에서 보면 한·일FTA는 동아시아 FTA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관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일FTA로 우려되고 있는 부품산업의 경쟁력 문제도 개방화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발전 방향에 맞게 적응하기 위한 과제로 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쟁점들을 고려할 경우 우리로서는 한·일FTA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관세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투자확대,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 효과로 인해 한일 분업 구조가 산업간 분업으로서의 수직적인 성격이 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평적인 산업내 분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고소득 국가인 일본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 일본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우리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일FTA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중장기적으로 낮추고 한국기업이 일본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한일정부간 협상에서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나 비관세장벽 문제는 실제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 산업계의 협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각 업체단체나 재계조직, 혹은 각 기업이 심도 있게 일본 비즈니스 환경의 문제점이나 우리의 대일 요구사항을 찾아내지 못한 채 막연하게 한·일FTA체결을 추진한다면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물론 일본의 비관세 장벽은 계열거래 등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많아서 정부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으나 그 기초가 되는 제도적 장애를 찾아내 대일요구

사항으로서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각 산업은 업계단체를 통해 기업의 이해를 조정하고 정책을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기업의 시장진출이나 신제품의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본 산업단체는 기존 회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국의 신규기업이 참여하기가 어려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한일 각국의 산업단체 소속 회원사를 상호승인 하는 제도를 만들고 우리 기업이 일본시장에 보다 쉽게 도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업이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산학연계 기술 개발 프로젝트 등에 자유롭게 참여하면서 일본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과학기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완성품업체와 부품 및 소재 업체간에 형성되고 있는 일본의 강력한 계열거래 시스템의 배타성을 약화시켜서 우리기업이 일본의 기업간 분업구조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일본보다도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나 경영투명성 등을 감시·견제해 계열거래의 배타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일본이 한·일FTA를 위해 일본 고유의 문화와 기업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리라고 믿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 측면에서 일본 측에게 제공하게 될 혜택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반대급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형태로는 산업협력, 기술이전, 투자협력 등이 가능하다. 최근 한일간에는 중국을 포함한 공동연구를 통해 각종 IT규격을 통일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산업협력은 한·일 FTA 체결 이전부터 활발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일 FTA를 계기로 격화되고 있는 시장환경 속에서 국내기업들의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일구조조정 지원기금을 조성하면서 일본의 재정적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시정하는 작업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특정 품목에서 우리 제품의 대일시장 점유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설정하여 일본 측의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수치 목표가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건설시장의 개방화를 촉구하면서 값싼 한국인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유도한다면 일본시장 진출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 기술을 가진 일본 중소기업과 한국 중소기업 간의 기술제휴, 투자교류를 촉진하는 지원도 필요하다. 기술은 있지만 경영이 어려운 일본 중소기업 중에서는 1990년대에 강화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에 의해 겨우 도산을 모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이들 기업의 기술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기업으로 이전해 한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중개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당황해서 준비하는 구습에서 벗어나 한·일 FTA를 사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인식하고 일본기업, 일본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한·싱 FTA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9월 들어 APEC 정상회담 시 고축통 총리가 양국간 FTA 체결을 제안한 이래 싱가포르 측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FTA를 제안하였다. 2002년 10월 들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2002년 11월 시드니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하여 양국간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 발족에 합의하였다. 이의 명칭은 Korea-Singapore FTA Joint Study Group이며, 목적으로는 FTA의 범위 및 상세사항 논의이고, 구성으로는 정부, 산업계, 학계 대표로 이루어졌다. 또한 회의주기는 최소 2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일정조정 결과 2003년 3월에 1차 회의를 갖기로 합의한 후, 운영기간은 6개월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 동 공동연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사항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3년 3월에는 서울에서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싱가포르 교역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13>와 같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최대 교역파트너이며, 외환위기중 감소된 양국간 교역도 경제회복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01년에는 양국간 교역이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다시 감소하였지만, 2002년 들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향후 주력 교역 품목인 IT 경기의 회복 전망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3. 한·싱가포르 교역추이

(단위 : 백만불)

연도 국가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총교역	5,811.7 (25.0)	8,857.5 (52.4)	8,966.1 (1.2)	8,213.7 (-8.4)	5,777.7 (-29.7)	7,233.5 (25.2)	9,371.1 (29.6)	7,094.1 (-24.3)	7,652 (7.8)
수출	4,151.8 (33.5)	6,689.4 (61.1)	6,438.8 (-3.8)	5,796.8 (-10.0)	4,065.0 (-29.9)	4,921.8 (21.1)	5,468.2 (14.8)	4,079.6 (-27.8)	4,222 (3.5)
수입	1,659.9 (7.8)	2,168.1 (30.6)	2,527.3 (16.6)	2,416.9 (-4.4)	1,712.7 (-29.1)	2,311.7 (35.0)	3,722.9 (61.1)	3,011.5 (-19.1)	3,430 (13.9)
무역수지	2,491.9	4,521.3	3,911.5	3,379.9	2,352.3	2,610.1	1,745.3	1,068.1	791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03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불/2001년 기준)을 살펴보면, 주요수출품으로 반도체(1,534), 무선 통신기기(469), 컴퓨터(148), 철강판(76)이며, 주요수입품은 반도체(1,455), 컴퓨터(710), 석유제품(268), 석유화학제품(104)이 차지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투자현황은 다음 <표 14>에서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국가 중 제2위 對韓투자국 (1위: 말레이시아, 2001년 누계 58.7억불)으로 2001년에는 \$7.5백만, 누계로 총\$23억을 기록하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제지, 전기·전자, 섬유·의류, 기계), 서비스업(무역, 금융, 도소매업, 운수, 창고)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2001년도 對싱가포르 투자액은 \$7.7백만으

로, 2001년도까지 누계로 총 \$7.9억을 기록하였다.

표 14. 한·싱가포르 투자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국가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누계
한→싱	28.6 (8)	75.5 (16)	57.9 (16)	291.0 (3)	78.3 (10)	215.7 (19)	28.4 (15)	41.2 (13)	816.6 (100)
싱→한	65.4 (21)	46.6 (16)	45.5 (18)	1,183.8 (12)	414.1 (31)	304.2 (54)	189.6 (33)	146.2 (48)	2,395.4 (231)

주 : ()안은 투자건수임

* 자료 : 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통계자료, 2003

2004년 7월의 한·싱가포르 FTA 제 4차 공식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양측은 지난 3차 협상에 이어, 상품무역, SPS / TBT / MRA 분과, 서비스 무역,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분쟁해결 분과 등 8개 분과로 나뉘어 논의를 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결과, IPR, 금융서비스, 협력, 분쟁해결 분야에서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상품무역, SPS/TBT/MRA분야 등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보임을 따라 9월초 비공식협상을 통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타결을 모색키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싱가포르와 2004년 내에 FTA 협정 타결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7일부터 10일까지 회의에서 상품분야 시장개방 이행계획에 대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

4. 실증분석

(1) 기존연구

한·칠레 FTA가 발효되어 한국의 對 칠레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자동차, 휴대전화, TV 등 칠레에 수출되는 2,450개 품목의 관세가 즉각 철폐되었으며, 협정 발효 후 10년이 지나면 한국 수출 품목의 96.5%가 관세를 물리지 않게 돼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칠레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7%를 차지하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공략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인교(2004)의 연구결과를 보면, 연간 對 칠레 수출은 5억4천만 달러 증가하고, 對 칠레 수입은 2억2천만 달러 늘어나 對 칠레 무역수지는 3억2천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에 0.005%p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산업자원부(2004)는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칠레에 대한 한국 공산품의 수출증가액이 단기적으로 7천만 달러, 중·장기적으로는 2억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인교(2004)의 한-아세안 FTA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GDP는 관세철폐를 통해 0.05%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이를 통해 교역과 투자, 성장 등이 상호 순기능을 발휘해 나타나는 자본축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0.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국가별로 연간 5억10억

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 분석방법 및 소개

FTA 체결과 관세인하에 따른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수출입증대 효과를 추정하여 향후 관세인하에 따른 수혜가 큰 품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무역협회의 품목 코드 분류에 따른 해당국 수출입부문에서 무역협회의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간데이터를 토대로 ARIMA모형¹³⁾으로 2004년까지 외삽법(外挿法, extrapolation)에 기초하고 있다. 품목은 한국무역협회의 MTI(3단위)와 HSK(6단위) 분류로 집계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모형은 회귀분석(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or)은 어느 선정된 값에 수반되는 편차(deviation)를 제공하여 합한 것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그 최소 값을 선정함으로써 추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느 임의표본 $Y_1, Y_2, Y_3, \dots, Y_n$ 이 있는데 각 Y_i 는 동일한 평균 X 와 분산 σ^2 를 갖고 있다고 하자. 이에 대한 각각의 실제 관측치는 다음과 같은 관계로 표시될 수 있다.

$$Y_i = X + u_i \quad (1)$$

여기서, $E(Y_i) = X$ 이고, $E(u_i) = 0$ 이다. 한편, X 를 추정하고자 하는데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은 $\sum_{i=1}^n (Y_i - X)$ 를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X 의 추정량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X 의 값 (\hat{X})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면,

$$\sum_{i=1}^n (Y_i - \hat{X})^2 \leq \sum_{i=1}^n (Y_i - X)^2 \quad (2)$$

\hat{X} 는 X 의 최소자승추정량(least-squares estimator)이 된다.

여기서,

$$Y_i = \hat{X} + e_i \quad (3)$$

라고 놓으면 \hat{X} 는 다음과 같이 편차를 제공하여 합한 것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구해질 수 있다.

$$\sum_{i=1}^n e_i^2 = \sum_{i=1}^n (Y_i - \hat{X})^2 \quad (4)$$

\hat{X} 에 대한 식 (4)의 일차미분을 0과 같게 놓으면 바로 구할 수 있다.

$$\frac{\partial \sum_{i=1}^n e_i^2}{\partial \hat{X}} = -2 \sum_{i=1}^n (Y_i - \hat{X}) = -2 \left[\sum_{i=1}^n (Y_i - n\hat{X}) \right] = 0$$

13) ARIMA(1,1,0)이고, 추정은 Econometric Views 3.1로 하였다.

증가하고, 對 칠레 수입은 4천5백만 달러 늘어나 對 칠레 무역수지는 8천1백만 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여기서 추정된 대로 한·칠레 FTA의 긍정적인 효과는 칠레가 2003년 11월 1일자로 이후 6%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주로 자동차와 휴대폰을 포함한 무선통신기기가 많이 판매된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무선통신기기의 증가율이 상당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아세안 FTA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인교(2004)의 분석결과와 비슷하게 수출물량단위 기준으로 연간 4억9억 달러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연구에서와 같이 향후에도 보다 많은 연구 활동들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이 큰 국가들을 검토하고, 정부는 연구결과를 들을 토대로 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FTA 체결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 권 경우, “방글라데시-인도와 FTA 적극 추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7.
- 김기홍, “ASEAN의 무역 패턴과 AFTA 결성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FTA정책 방향”, 한국무역학회 발표논문집, 제3회 광양항 국제포럼 및 한국무역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200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0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도-태국 FTA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04.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뉴질랜드, 태국과 FTA 11월 이전 타결키로”, 2004.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주, 대아세안 FTA 가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도네시아, ASEAN-중국 1단계 관세인하 단행”, 2004.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멕시코 FTA 체결 후 한국의 대 멕시코 주요 수출상품별 영향분석”, 2004.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주, 미국간 FTA 비준 확실”, 2004.7.
- 박번순,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빈준화, “말레이시아, 오만 FTA 체결 검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7.
- 빈준화, “말레이시아, 호주와 FTA 협상 개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7.
- 유관영, “한·중·일 3국간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후생효과”, 한·중·일 FTA 공동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9.13.
- 산업자원부, “한·칠레 FTA효과”, 2004.2.17.
- 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통계자료, 2003.
- 아세안사무국, ASEAN 對外 FTA 추진동향, 2004.
- 외교통상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단기효과 분석”, 2004.
- 외교통상부,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2.
- 외교통상부, 한·칠레 FTA에 따르는 주요시장 개방 일정, 2004.3.
- 외교통상부, 한국의 FTA 추진현황, 2004.2

- 외교통상부, “한국과 EFTA 간 FTA 체결 검토를 위한 제1차 공동연구”, 2004.8
- 윤기관, “대한민국의 FTA 체결대상국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발표논문집, 제3회 광양항 국제포럼 및 한국무역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2004.
- 이원근, “한·칠레 FTA 비준 통과와 영향과 대책”, 현대경제연구원, 2004.3.
-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백서, 2002.
-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백서, 2003.
- 정인교, “우리나라 FTA 추진대상국 선정 및 추진전략”, FTA정책 종합토론회 발표자료, 2003년 및 기타 보도자료
- 정인교, “한-칠레 FTA 이후 FTA 추진 방향과 정책시사점”, 응용경제 제5권 제2호(특별호), 응용경제학 회, 2003.9
- 정인교, “한-아세안 FTA 추진과제 공청회”, 외교통상부, 2004.8.
- 주일한국대사관, 정책참고자료, 2003.
- 주일한국대사관, 정책참고자료, 2004.
- 칠레 자동차협회(ANAC), 통계자료, 2004.6.
- 한국 무역협회, 통계자료, 2004.8.
- 한국 관세청, 통계자료, 2004.6.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03.
- 한정희, “미국, 태국과 FTA 협상시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7.
- 황기상, “브라질과 미국의 FTAA 전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6.
- 황기상, “메르코수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 추진키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7.
- 木村福成·鈴木厚, 「加速する東アジアFTA」, ジェトロ, 2003.
- LG경제연구원, “한일 FTA, 상생의 조건은 무엇인가”, 보도자료, 2004.8.
- OECD,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rade Directorate Trade Committee, p.12, 2002.
- UN 무역통계자료, Tran Van Tho, “AFTA in the Dynamic Perspective of Asian Trade”, April 2002,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Tokyo, Japan

附錄

1. 製品別 關稅引下에 따른 輸出入 增大效果의 回歸分析 推定

구 분	상수항	관세 인하폭	R ²	D.W.
수출				
자동차	0.0021 (1.37)	-0.1163 (-2.12)*	0.272	1.871
무선통신기기	0.1031 (1.95)**	-0.9403 (-10.12)*	0.290	1.982
수입				
돼지고기	0.0245 (1.66)	-0.1431 (-2.36)*	0.254	1.932
포도	0.1005 (1.92)**	-0.3773 (-4.81)**	0.282	1.970

주 : 1) ()은 t 값이며, *는 5%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 2) 모든 변수들은 자연대수를 취한 후 이를 차분하였다. 이들 데이터는 t값의 경우 -2.12-10.12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결정계수(R²) 값은 0.250.29로서 낮게 추정되었다. 그러나, 낮은 결정계수(R²) 값은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D.W 값은 1.871.98로 2에 가깝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문에서 관세인하로만 수출증대 가능성을 보았으며, 환율 등 다른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편기(bias)가 있을 수 있는 데 수치상으로는 환율 등을 고려한 계량 모형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 3) 이외의 수출입 품목도 있지만, 본문에서 전부 신지 않은 것은 일부품목의 경우 자료의 미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ABSTRACT

A Study on major nations and Korea's FTA policy

Kim, Jongkwon

This dissertation is assumed to continuously occur adjustment cost on present investment. So, I derived from time-nonseparable production-based CAPM and tested the performance of model through data. I also compared time-nonseparable production-based CAPM with time-separable production-based CAPM and CCAPM, CAPM through testifying the performance of model.

At the part of applied application, I estimated time-nonseparable PCAPM-betas. The data of Korea consists of 320 listed companies on Korea Stock Exchange (KOSPI) from first quarter 1987 to first quarter 2002. This data also is categorized by scale and industries. Additionally, I estimated time-nonseparable PCAPM-betas through 500 listed companies of New York Stock Exchange (NYSE) from first quarter 1973 to first quarter 2002. I observ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230 firms by 320 companies in Korea. After that, I compared time-nonseparable PCAPM-betas by firms with time-separable production-based CAPM-betas and CCAPM-betas, CAPM-betas through individual firms.

At empirical test, I found that estimated parameter of adjustment cost on time-nonseparable production-based CAPM by scale and industries in Korea had positive value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Moreover, this approach proved to resolve the underestimation of adjustment cost on time-separable production-based CAPM by scale and industries. I also found that the time-nonseparable PCAPM performed better than time-separable production-based CAPM and CCAPM, CAPM. The result from U.S data proved to have similarity to that of Korea. Specifically, I found that time-nonseparable PCAPM-betas by firms performed better than CAPM-betas on individual firms in Korea.